

제87주기 유관순열사 순국 추모제 기념

입상작품집

07

– 제33회 –

- 사생 대회
- 백일장 대회



아우내문화원
Aunae Cultural Center



제87주기 유관순열사 순국 추모제 기념

Aunae Cultural Center

발/간/사

무더운 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을의 문턱에서,
‘제 87주기 유관순열사 추모제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서른 세 해를 이어온 뜻 깊은 대회라 감회가 깊습니다.

올해는 고르지 못한 날씨와 각 학교내 중간평가가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명의 많은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
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인도 네루 수상이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글에 “한국의 3.1
정신을 본받으라”라고 했던 뿌듯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막연한 애국의 개념을 벗어나, 과거의 반듯했던
조상의 얼을 바로 알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주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꿈’과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똑똑한 언어 ‘한글’이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한껏 뽑내주었습니다.

대회진행에서부터 책 발간에 이르기까지 후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충청남도천안교육청 황봉현 교육장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 아우내문화원 임원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해주신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장소제공에 협조해주신 사적관리소 이환배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대적 제약이 많았던 여성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4.1 아우내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을 기리고, 또한 옥중에서 돌아가신 이듬해 9월28일을 새싹들이 표현한 작품집으로나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더 나은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2007년 10월

아우내문화원장 최영환



제87주기 유관순열사 순국 추모제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Contents

차례

발간사	03
아우내 문화원장.....	03
대회 이모저모	06
사생대회	07
입상자명단	08
심사평	10
입상작품	11
초등 I 부 입상작품	12
초등 II 부 입상작품	21
중등부 입상작품	26
고등부 입상작품	28
백일장대회	31
입상자명단	32
심사평	33
입상작품	34
초등 I 부 입상작품	36
초등 II 부 입상작품	48
중등부 입상작품	70
고등부 입상작품	86
회원가입안내	98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99



대회 이모전모





순국 제87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기념

- 제33회 -

▶ 사생대회 ◀

사생대회 주제

초등 I, II, 중등부, 고등부 : 가을풍경
정물, 포스터(나라사랑을 주제로 함)





유관순 열사 순국 추모제 기념 사생대회 입상자 명단

구분	순위	학 교 명	학 년	이 름	비 고
전체	대상	병천중학교	2학년	이보라	
	특상	봉서초등학교	2학년	박하늘	
	금상	월봉초등학교	2학년	최미나	
	은상	월봉초등학교	1학년	유소연	
	동상	월봉초등학교	1학년	김태호	
	장려상	수곡초등학교	2학년	박수민	
		부영초등학교	2학년	신희주	
		월봉초등학교	2학년	전민지	
		오성초등학교	2학년	노희수	
		월봉초등학교	3학년	안초은	
초등 부	입선	부영초등학교	1학년	임하나	
		병천초등학교	1학년	임유림	
			1학년	조상아	
		성남초등학교	1학년	정의정	
		월봉초등학교	1학년	이경진	
			1학년	김채림	
			1학년	심지은	
			1학년	이가은	
		부영초등학교	2학년	유승준	
		성남초등학교	2학년	윤새나	
			2학년	정현정	
	입선	천동초등학교	2학년	한혜선	
		수곡초등학교	2학년	위해지	
		오성초등학교	2학년	이윤서	
		월봉초등학교	2학년	윤재희	
			2학년	박소현	
			2학년	윤소원	
			2학년	전동민	
		구성초등학교	3학년	허진경	
		봉서초등학교	3학년	이영한	
		병천초등학교	3학년	이채호	
			3학년	최승호	
			3학년	남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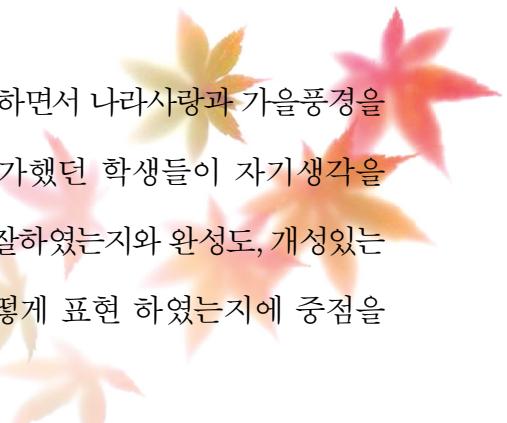


유관순 열사 순국 추모제 기념 사생대회 입상자 명단

구 분	순 위	학 교 명	학 년	이 름	비 고	
초등 I 부	입선	병천초등학교	3학년	김도윤		
		월봉초등학교	3학년	송민정		
		오성초등학교	3학년	정하은		
			3학년	김륜환		
			3학년	정윤지		
			3학년	이호경		
		봉서초등학교	6학년	박나리		
초등 II 부	특상	수신초등학교	4학년	한 솔		
	금상	수곡초등학교	4학년	박경연		
	은상	병천초등학교	5학년	김수정		
	동상	구성초등학교	6학년	김은희		
	장려상	목천초등학교	6학년	곽영혜		
		월봉초등학교	4학년	조소윤		
		수신초등학교	5학년	이주현		
		월봉초등학교	6학년	김한솔		
		봉서초등학교	4학년	이재현		
	입선	병천초등학교	4학년	강가희		
		수곡초등학교	4학년	양정아		
			4학년	허주희		
			6학년	이은비		
		수신초등학교	6학년	윤세원		
중등부	특상	천남중학교	2학년	류제권		
	금상	병천중학교	3학년	이주옥		
	은상		2학년	한승희		
	동상		1학년	김민성		
	장려상		2학년	구한나		
고등부	특상	병천고등학교	2학년	김예지		
	금상		2학년	임진아		
	은상		2학년	오유진		
	동상		2학년	김유나		
	장려상		2학년	노유림		
			2학년	안현경		
			2학년	정연주		



심사평



이번 대회에 심사를 하면서 나라사랑과 가을풍경을 주제로 이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자기생각을 그림으로 주제표현을 잘하였는지와 완성도, 개성있는 색감표현, 구도를 어떻게 표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입상작은 엄선하여 학생들의 기량이 정성껏 묻어 나는 개성있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고 전년도 보다 학생들의 기량이 보다 발전한 것 같아서 심사위원으로서 기쁜마음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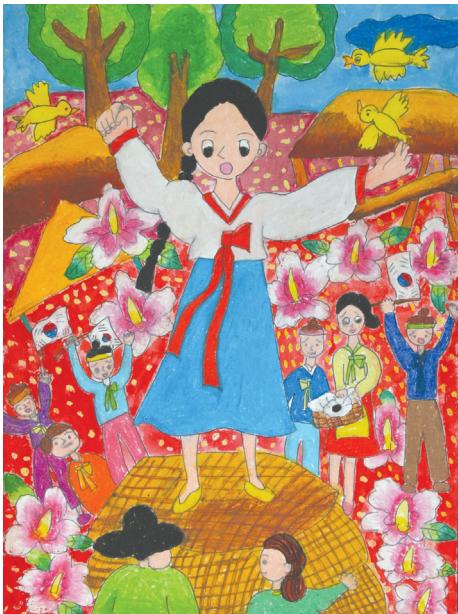
한국미술협회원 박정옥, 김순미

사생대회 입상작품



이보라
병천중 · 2학년

사생대회 초등 1부 입상작품



박하늘
봉서초 · 2학년



최미나
월봉초 ·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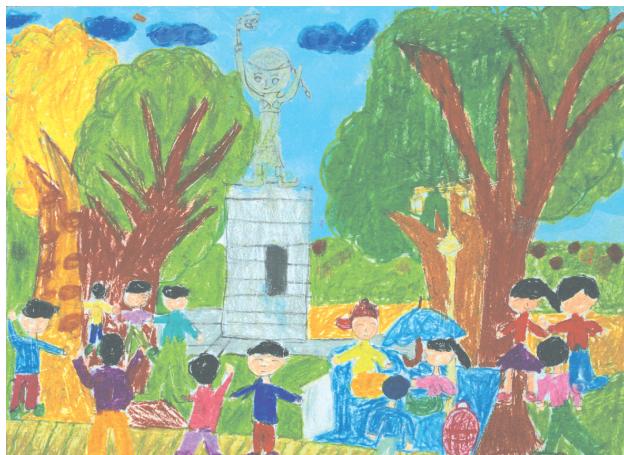




유소연
월봉초 · 1학년



김태호
월봉초 ·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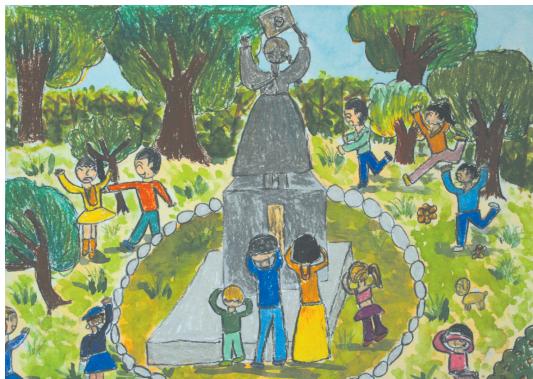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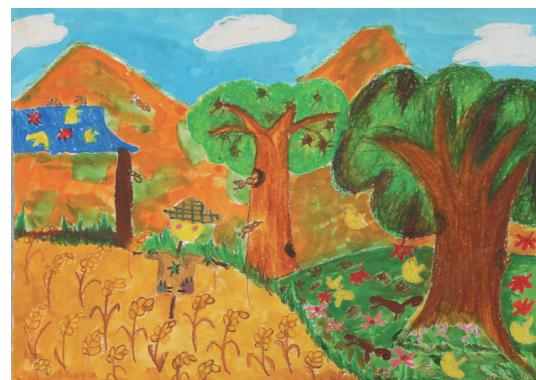
박수민
수곡초 ·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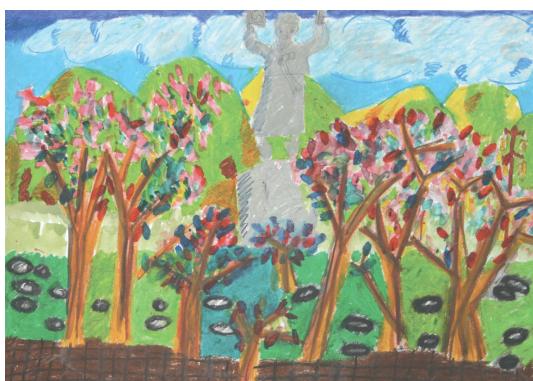
신희주
부영초 · 2학년



전민지
월봉초 · 2학년



노희수
오성초 · 2학년



안초은
월봉초 · 3학년

입선



임하나 부영초 · 1학년



임유림 병천초 ·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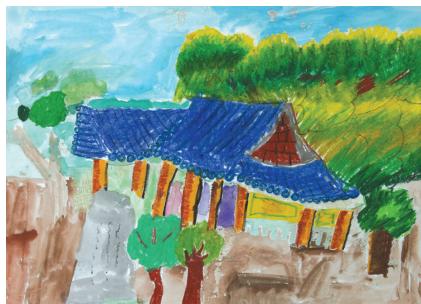
조상아 병천초 · 1학년



정의정 성남초 · 1학년



이경진 월봉초 · 1학년



김채림 월봉초 · 1학년



심지은 월봉초·1학년



이가은 월봉초·1학년



유승준 부영초·2학년



윤새나 성남초·2학년



정현정 성남초·2학년



한혜선 천동초·2학년



위해지 수곡초 · 2학년



이윤서 오성초 · 2학년



윤재희 월봉초 · 2학년



박소현 월봉초 · 2학년



윤소원 월봉초 · 2학년



천동민 월봉초·2학년



허진경 구성초·3학년



이영한 봉서초·3학년



이채호 병천초·3학년



최승호 병천초·3학년



남예지 병천초·3학년



김도윤 병천초 · 3학년



송민정 월봉초 · 3학년



정하은 월봉초 · 3학년



김륜환 오성초 · 3학년



정윤지 오성초 ·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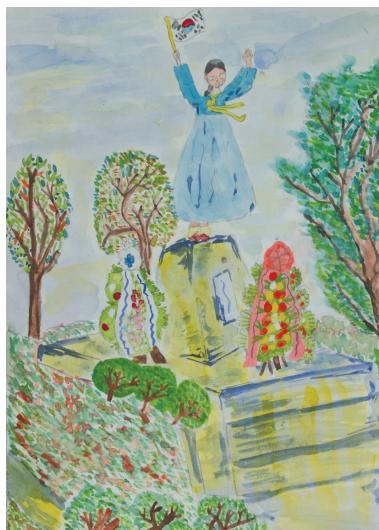


이호경 오성초 · 3학년

사생대회 초등 Ⅱ부 입상작품



박나리
봉서초 · 6학년



박경연
수곡초 · 4학년



한솔
수신초 · 4학년



김수정
병천초 · 5학년



김은희
구성초 · 6학년



곽영혜
목천초 · 6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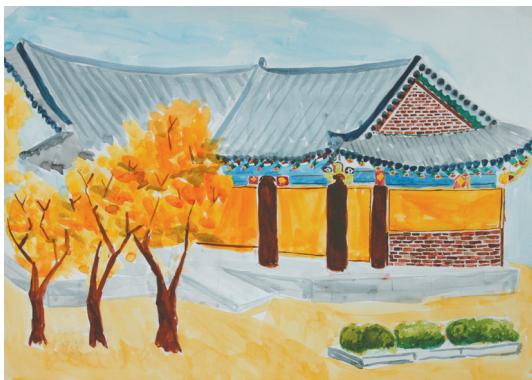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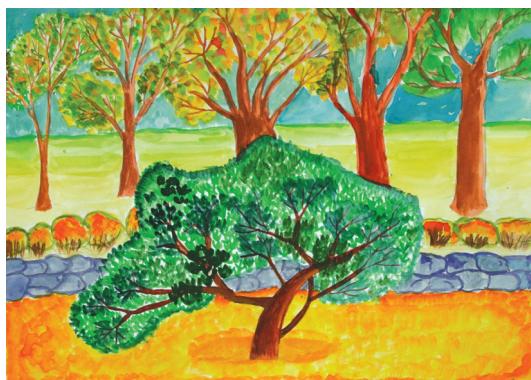




조소윤
월봉초 · 4학년



이주현
수신초 · 5학년



김한솔
월봉초 · 6학년



이재현
봉서초 · 4학년



양정아
병천초 · 4학년



강가희
병천초 · 4학년



이은비
수곡초 · 6학년



중등부 입상작품



류제권
천남중 · 2학년



이주옥
병천중 · 3학년





한승희
병천중 · 2학년



김민성
병천중 · 1학년



구한나
병천중 · 2학년



고등부 입상작품



김예지
병천고 · 2학년



임진아
병천고 · 2학년



오유진
병천고 ·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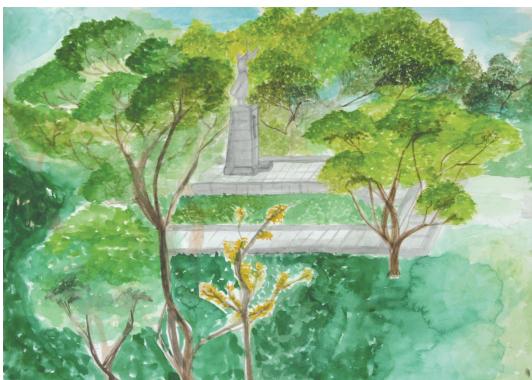
김유나
병천고 · 2학년



노유림
병천고 · 2학년



안현경
병천고 · 2학년



정연주
병천고 · 2학년



순국 제87주기
유관순 열사 추모기념

- 제33회 -

▶ 백 일 장 대 회 ◀

◆ 백일장대회 주제(시,수필)

한글, 나의꿈
(공통주제)





유관순 열사 순국 추모제 기념 백일장대회 입상자 명단

구 분	순 위	학 교 명	학 년	이 름	비 고
전 체	대상	천남중학교	2학년	고하림	
	특상	봉서초등학교	3학년	이신원	
	금상	봉서초등학교	3학년	김유진	
	은상	수곡초등학교	1학년	이희원	
	동상	수곡초등학교	3학년	최명주	
초등 I 부		병천초등학교	3학년	장소현	
		수곡초등학교	3학년	김은빈	
		구성초등학교	3학년	최시온	
		부영초등학교	2학년	전병식	
		수신초등학교	3학년	김은혜	
초등 II 부	특상	봉서초등학교	6학년	홍누리	
	금상	월봉초등학교	6학년	송예진	
	은상	봉서초등학교	6학년	김민지	
	동상	구성초등학교	6학년	이순현	
		목천초등학교	5학년	김세정	
중등부		구성초등학교	6학년	박영진	
		봉서초등학교	6학년	한수빈	
		봉서초등학교	6학년	이정현	
		월봉초등학교	4학년	홍재성	
		병천초등학교	6학년	이연주	
고등부		병천초등학교	4학년	김다슬	
		병천초등학교	4학년	이서희	
	특상	천남중학교	1학년	진달래	
	금상	천남중학교	1학년	박지연	
	은상	병천중학교	1학년	고하늘	
장려상	동상	천남중학교	1학년	이희주	
		천남중학교	2학년	유지원	
		병천중학교	1학년	김하나	
		병천중학교	1학년	김우섭	
		병천중학교	1학년	임지현	
장려상		병천중학교	2학년	유정민	
	특상	병천고등학교	3학년	임주희	
	금상	여지상업고등학교	1학년	박소라	
	은상	여지상업고등학교	2학년	안은경	
	동상	병천고등학교	2학년	신은혜	
		여지상업고등학교	3학년	임은선	
		여지상업고등학교	1학년	오은비	

심사평

“글은 곧 사람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쓴 사람의 사상과 취미 그리고 성격
까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유관순열사의 넋을
추모하고, 그 높은 기개를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번 백일장은 초등부가 대거 참여한 데 비해 중등부가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색다른 주제를 주었음에도
열사의 숨은 뜻을 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여 흐뭇
했습니다.

끝으로 백일장인 관계로 글 다듬기를 할 시간이 없어
문장이 정리되지 않은 흠은 있으나, 필을 잡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고, 글쓰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 백 남 일
윤 여 흥
장 성 균





천남중학교 2학년
고 하 림

마음 속 종이 비행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등을 돌렸다. 엄마의 흐느낌 속에서 숨죽인 채 나도 울었다. 흐느낌이 숨소리로, 숨소리가 없어질 때 까지 벽만 노려봤다. 어두운 방 속 나혼자라는 느낌에 몸서리 쳤다. 곰팡이 선 벽지의 캐캐한 냄새도 도둑고양이의 야옹거리는 울음도 죽기보다 싫었다. 부유하진 않았어도 넉넉하고 화목하던 우리집에 갑자기 들이탁친 가난이라는 녀석 때문에 부모님은 하루하루 사는것이 고되게 보였다. 나 역시 공부의 가치가 무지하게 느껴졌다.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나를 엄마는 그저 바라보실 뿐이었다. 집안사정을 이렇게 만든것이 전부 당신잘못이라 여긴채.

마냥 뜨겁던 여름날, 그 날도 할일없이 버스를 탔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라디오를 들었다. 버스안의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하루가 더 벼겁게, 힘들게 느껴졌다.



"신경림씨의 '가난한 사랑노래'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라디오의 성우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시를 낭독했다.

"가난한 사랑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시와는 거리가 멀었던터라 별다른 생각없이 흘려들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그 시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오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가난. 가난하다. 가난'

이윽고 급하게 버튼을 누르고는 버스가 멈춘 동시에 집을 향해 내달렸다.

'가난'이라는 단어에 동요되어 벌겋게 충혈된 두 눈이 눈물을 뿜어내고 말았다. 눈물 콧물 범벅 된 얼굴을 거칠게 훔치고는 식당일을 마치고 돌아 오신 엄마풀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었다.

그 날 내 가슴에 들어온 문학은 날 변화시켰다. 그리고 내게 작가라는 꿈의 뜨거움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글을 쓰면서 희열이란 감정을 느낀다. 또한 책을 통해 삶의 공기가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신경림시인. 내가 닮고싶고 내가 오르고 싶은 산의 꼭대기이신 신경림 시인. 이십년 후 신경림시인을 꼭 만나 한국문학의 미래와 우리글의 창대 함을 논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시와 글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심화적으로 공부할것이다.

'올해의 문학상' 그리고 '스테디 셀러'라는 이상이 버티고 있다. 이제, 냄새캐캐한 곰팡이나 이름모를 벌레는 두렵지도,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내가 한국문학계의 거장으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내 심장속 꼬깃꼬깃 접혀 있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활개칠 것이다.



봉서초등학교 3학년
이신원

한글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봉명동에 사는 이신원이라고 해요.

세종대왕님이 만들어 주신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가 편리해졌어요.

먼저 한글을 만들어 주신 점에서는 참 감사하구요. 만약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중국처럼 한자를 쓰고 있었을 꺼예요.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참 힘들고, 무엇이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끈기가 없어서 한글을 못 만들었을텐데… 세종대왕님은 무슨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나요? 그리고 요즈음 제가 한자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한자들이 나올때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배우려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글이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는 아쉽네요. 또 세종대왕님께 죄송한 점이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공을 들여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요즈음은 나쁜 말로 한글이 변하고 있어요.

세종대왕님! 앞으로 친구들에게 욕을 하지않고, 바른말 고운말 쓰는 한글을 사랑하는 신원이가 될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7년 9월 28일
신원이 올림



봉서초등학교 3학년
김 유 진

어! 우리 말이 이상해요

지난 해 한글날. 난 한글날을 맞아 국어사전에서 곱고 아름다운 우리 표준말을 찾아 보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준말이 있었다. 가액질, 말뚱거리다 등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웬지 모를 멋스러움과 지혜가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았다.

또 다른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 보려고 컴퓨터를 켰다. 그런데 사람들이 님아, 방가방가, ㅠㅠ 등 심한욕과 신조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좋은 한글이 있는데 왜 저렇게 신조어와 심한욕을 사용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다. 그때 며칠 전 일이 머리를 스쳤다. 길을 가다 문득 간판을 보게 되었다. 미쪼미쪼, 조타, 반가벼 등 이상한 문구의 간판이 즐비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말과는 너무나 달라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국어 사전에도 없었다. 다양한 우리말이 있는데 외래어, 신조어 등을 많이 사용하는 걸까? 나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쓰지 말아야겠다.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하여 만든 한글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정성껏 만든 물건을 망가뜨린다면 정말 괴로울 것이다.

우리의 대표중에 대표인 한글! 위대한 유산인 한글, 유네스코에 뽑힐 정도로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글이 외래어와 섞여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한글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먼저 바르고 고운 말을 실천합시다.



꿈★은 이루 어진다.

"곤니찌와"

지난 봄에 우리집에 일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다. 우리 이모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한국을 여행하러 온 것이다.

"이모, 뭐라고 하는거야?"

나를 쳐다보며 무슨말을 자꾸 하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엄마 뒤에 숨고 말았다. 엄마께서 준비하신 저녁을 먹으면서도 일본말도 하고 영어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오빠는 키득키득 웃기만 하고, 나를 쳐다보면 무슨 말을 걸까바 계속 밥만 먹었다.

그 다음날 한국민속촌에 구경을 갔는데 외국인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이모가 멋있어 보였다. 외국어를 잘하면 세계 여러나라를 혼자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날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통역사가 되어야겠다고.....

통역사가 되어서 세계 여러나라를 여행하고, 여러나라 사람들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우리나라를 소개 해야지.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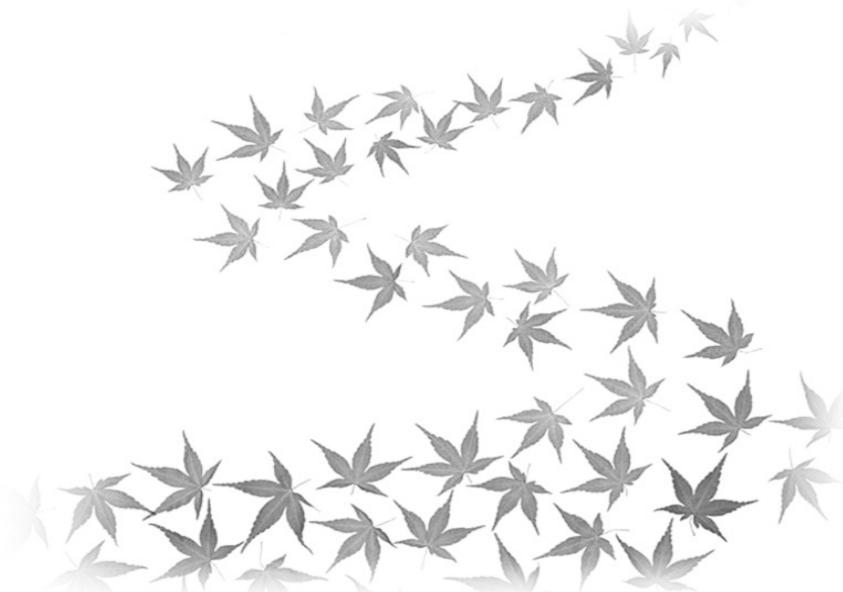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유관순언니가 있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의사... 훌륭하신 분들을 세계 여러나라 친구들에게 꼭 알려야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설레인다. 지금은 다른 친구들처럼 영어학원을 다니지만 난 그 친구들과 다르다.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학원에 오는 친구도 있는데 나는 영어를 배우는게 너무 신난다.

내 꿈은 통역사이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다음달 학교에서 학예발표회를 하는데 나는 영어구연동화를 준비하고 있다. 열심히 연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깜짝 놀래줘야지.

꿈은 이루어 진다고 아빠께서 늘 말씀하셨다.

난 내 꿈을 꼭 이룰 것이다. 이희원 아자아자 파이팅!!





수곡초등학교 3학년
최명주

나의 꿈은 변덕쟁이

저는 이상한 아이인가 봅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자꾸만 바뀝니다. 처음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픈 곳을 고쳐 주시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우는 아이도 달래 주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피아노 선생님께서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하시는 것과 텔레비전에서 매우 아름답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를 보면서 저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또 피아노 연주를 잘 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요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빵과 여러가지 음식들을 요리책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은 무척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조금 서툴렀지만 다 완성하고 나면 웬지 뿌듯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를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였습니다. 요리사는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나중에



요리가사 되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선 요리를 만든지 한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영어학원 선생님께서도 며칠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니 아파서 학원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또 제 동생도 열이 많이 나고, 엄마께서도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중에 커서 아픈 사람들을 뚝딱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열이 나면 열을 내려주고, 배가 많이 아프면 배가 안 아파지도록 약을 주어 아픈사람만 있는 아픈 대한민국이 되지 않고 병이 걸리지 않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아파서 고생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마술처럼 뚝딱 고쳐 주어 모든 나라가 아프지 않고 매우 행복한 좋은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변덕쟁이인 저의 꿈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밝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고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것입니다.



병천초등학교 3학년
장 소 협

내 꿈

난 아주 특별한 꿈이 있다. 난 내 소중한 우정의 약속이 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예림'이다. 그리고 그 꿈은 제빵사이다. 먼저 순서가 있다. 먼저 나랑 예림이와 고등학교때, 기숙사에서 살기로 했다. 그리고 20살에 대학교에서 제빵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4년이 지나서 우리가 열심이 모은 돈으로 좋은 빵가게 하나를 차리고 손님들이 즐겁게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빵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우린 손님들에게 친절이 대하고 그리고 5년뒤, 우린 아주 유명한 제빵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예림이와 좋은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예림이와 나는 우정이 많이 쌓여있고 30살이 되어 맘에 든 남자를 찾아 결혼을 하고 제빵사는 계속하고 손님들에 사랑도 계속 되면서 예림이와 나는 더욱 더 유명해지고 시간이 흘러 갈수록 우린 유명해지고 더욱 유명해져서 대통령님께 상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가 직접 만든 케익을 선물로 드리고 싶고 그럴수록 손님들의 사랑이 많아져 가게는 점점 커져가 우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많이 늙으신 부모님께 큰 호강을 시켜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 용돈을 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께도 좋은 옷 좋은 용품을



사드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싶고 부모님께 은혜도 갚고 싶다.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그 아이에게 간식으로 맛있는 빵과 쥬스를 만들어 주고 싶다. 그리고 학생이 되어서 그 아이 학교에 간식으로 내가 만든 케익 한조각, 쥬스한잔을 돌리고 싶다.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 내 자식은 나처럼 유명한 제빵사가 되어 예림이와 우정은 더 커지고 내 자식과 예림이 자식과도 같은 친구가 되어 우리처럼 대통령께상을 받고 예림이와 나는 할머니 제빵사가 되어 우정은 길어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수곡초등학교 3학년
김 은 빙

꼭 이루고 싶은 나의 꿈

유관순언니는 나라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순국사람들 중 한 명인 마음이 따듯한 소녀이다. 유관순언니는 1902년 3월 15일 충남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유관순언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였다고 한다. 사부인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들어간 후 부터는 나라독립이 꿈이 되었다. 유관순언니는 광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

나의 꿈은 세계여행이다. 예전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다. 그 중 하나는 저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여행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는 용돈을 받으며 꾸준히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다. 또 세계 여러나라를 알리는 책도 열심히 읽고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모습을 많이 접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원에서 다른 나라 사람과 말이 잘 통하기 위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새롭게 다짐을 하기 위해 벽에 커다란 세계지도를 붙여 놓고 본다.

내가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이유는 세계의 생활모습도 보고, 먹는 음식들을 맛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관순언니가 나라를 위해 일했듯이 나도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의 생활모습과 문화등을 많이 알리고,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알려줄 것이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이나 우리나라의 역사 등을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다. 나도 나의 꿈을 위해서 유관순언니처럼 아무리 힘들고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잘 넘겨서 꿈을 이룰 것이다.

"아자 아자 파이팅!!!"

구성초등학교 3학년
최시온

피아니스트의 꿈

나는 꿈이 있다. 모차르트처럼 훌륭한 피아니스트이다. 내가 이 꿈을 가지게 된 까닭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는 동영상을 보고 이 꿈을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 나오는 희야언니는 네개의 손가락 밖에 없는데도 피아노도 잘 치고 나보다 연습을 훨씬 많이 하고 피아노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또, 연주회에서 손을 돌리며, 세계는 세계, 여리개는 여리개, 리듬이 있게 아름답게 연주를 한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 아주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해서 희야언니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린다. 그리고 엄마를 더욱 더 기쁘게 해드릴 때가 있었다. 성탄절날 엄마께 선물과 감동적인 편지를 드렸다. 희야언니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에다 효녀다. 너무 부럽고 나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회에서 멋진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희야언니도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 유명해졌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연주곡을 준비해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피아노 연습도 많이 하고 음악공부도 많이 해야한다. 희야언니처럼 하루에 7~8시간 연습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려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참고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하는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는 날까지 나의 꿈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다.



부영초등학교 2학년
전 병 석

한 글

나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책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것을 알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디언의 책을 읽고 글이 없어서 인디언들은 손이나, 깃털,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인디언들처럼 손으로 엄마하고 대화를 해보니 무척 재미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불편했다. 만약 우리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인디언들처럼 손으로 말하거나 한자를 사용하겠지,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나는 한글이 쓰기 쉽고 입모양을 보고 만들어 졌다는 걸 처음 알았다.

세종대왕님께서는 이런 한글을 어떻게 만들어 내셨을까?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영어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내가 커서 우리나라 한글을 전세계에 알려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

세종대왕님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마음껏 쓸 수 있고 보고싶은 책도 읽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글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세종대왕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꿈은 공룡시대를 탐험하는 과학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수신초등학교 3학년
김 은 혜

나의 꿈

나의 꿈은 사육사가 되는것이다.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노는 것이 나의 꿈이다. 무섭고 사나운 동물과도 놀고 싶다. 먹이도 주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 덩치 큰 동물들이랑 놀으려면 힘도 세야겠지?!

사육사가 진짜 되면 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거야~

엄마, 아빠도 허락하셨어. 부모님이 기뻐하실거야!

귀여운 동물이랑 놀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사육사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거야.

동물이랑 친해져서 부모님을 도와 드리고 말겠어!!

빨리 부모님을 웃기고 싶어~ 귀여운 동물 천사를

희귀종 친구들 만나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호랑이나 뱀, 사자같은 무서운 것도 교육시키고 싶다.

빨리 빨리 어른이 되어서 사육사가 되고 부모님이 평생 웃게 해드리고 싶다.

무섭거나 사납거나 위험해도 돼!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거야. 이게 나의 꿈이야.

다시 말하자면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께 효도 해야지!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사육사가 꼭~ 되고 말겠어!



한글 지킴이

한글! 조선 제4대 왕이신 세종대왕께서 창작해내신 우리나라만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글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바로 외국어와 인터넷용어 때문이죠. 지금 한자와 영어 등의 외국어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은어가 들어와 한글 대신 자리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가방가', '하이루' 등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인터넷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이 즐겨 듣는 가요에서는 외국어를 많이 찾아볼수 있어요. '빅뱅'이라는 가수의 '거짓말'이라는 노래 한소절을 들려드릴게요. 어머! 그룹이름부터 영어네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이야.' 보세요. 벌써 영어가 두 문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또,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중 '감사합니다'를 더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하지요. '고맙습니다'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감사합니다'는 한자인데 말이죠. 한국의 언어인 한글보다 더 우대받는 한자, 우습지 않나요? 게다가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볼펜 등의 외래어까지 이곳저곳에 한글을 괴롭히는 녀석들이 숨어있어요.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해요. 우리가 노력하지않으면 한글은 외국어와 인터넷용어들이



뒤섞여 정체불명의 언어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바른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 관문, 인터넷용어와 은어퇴치!

안녕하세요, 방가방가, 하이루등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말들은 사용하지 말아야해요.

두번째 관문, 외래어를 우리한글로 바꿔 사용하기!

우리가 북한에게서 배워야할 점이에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 사용해야 하겠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 바로 우리만의 언어, 한글에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저 홍누리가 앞장 설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한글지킴이, 누리야 가자!



월봉초등학교 6학년
송 예진

꿈을 꾸기 위해 필요한 것

꿈은 여러가지로 많다.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꿈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의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5살때 나의 꿈은 의사선생님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에 나와 의사선생님이 되는 것.

하지만, 그 때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몰랐다.

어느 날 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예진아, 의사 되려면 엄청 공부 많이 해야돼. 너 그거 몰랐지?"

"정말? 얼만큼?"

"아주! 많이!"

"뭐? 그래도 나 꼭 의사 할꺼야!"

"그래. 하지만 의사가 될려면 무지 공부해야한다는 것만 알아둬."

'지금까지 내 꿈은 의사였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보다.'

그 때까지 장래희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내가 너무 한심하게 생각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디자이너를 하고 싶은 친구, 가수가 되고 싶다는 친구,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 역시 같은 꿈을 생각하는 친구는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생각해서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작가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작가라는 꿈은 나의 적성에만 맞는 꿈이지 흥미를 느끼는 꿈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영어시간에 영어선생님은 자신의 꿈을 말해보라고 하셨다.

"예진아! 너는 꿈이 뭐니?"



"저요? 어..... 여군이요!"

"응? 뭐라고?"

"여군이요! 여자군인!"

"오! 아주 멋진 꿈을 가지고 있구나!"

솔직히 발표하고 나서 조금은 창피했다. 군인은 남자도 되기 힘든 직업인데, 여자애 꿈이 군인이라고 생각하니깐 조금은 웃긴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떨결에 대답했던 군인이라는 꿈은 웬지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의 나의 꿈은 아직 다 물들지 않은 단풍과도 같다. 빨갛게 물들고는 싶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그런 단풍잎과 같다.

꿈이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정한다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꿈을 져버리지 않는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봉서초등학교 6학년
김민지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나중엔 이 선서문을 외고 당당히 의사가 될
것이다. 어렸을 때 부터 나의 관심사와 꿈. 그 꿈이 잠시 흔들렸던 때도 있
었지만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런 꿈이 생기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싶게 된 이
유는 있다. 6년전 내 동생이 탈장수술을 했다. 난 수술실안에 들어가 있었
다. 그 안에서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에게 불어 넣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을 주는 모습이 열정적이고 멋있어 보였다. 어쩌면 그 모습 하나만 보고 내
가 의사가 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사가 내 꿈으로 맞는 것
같다. 난 내가 원하는 의사가 될려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와 미래의 외과의사 김민지는 무척 다르므로..... 우선!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지막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으로 학력... 그중에서도 난 도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생명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도덕, 내가 이것
들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지금의 나로서는 꿈도 꿀 수 없이 많
고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간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서 이 모든 것을
훌륭히 마칠 것이다.

내가 본 어느 영화에서 그랬다.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
이 작가가 되어 쓰는 책이다.' 지금은 아래에서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겠지
만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므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제7차 졸업생 '김민지'는 다음과 같이 선언 합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구성초등학교 6학년
이순현

내 꿈은

"정말 저렇게까지 노래연습을 해야 하는거야?"

난 동생과 채널을 돌리다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 '동방신기'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다. 동방신기는 5인조 남성그룹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아시아에서는 꽤 알아주는 가수이다. 난 가수들이 연습은 한, 두시간 정도만 연습하고 원래 타고난 실력인 줄 알았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나니 나도 노래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동방신기의 멤버들은 하루에 5시간은 노래연습을 하고 하루에 5시간은 춤연습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총 24시간 중 10시간을 춤과 노래로 보내는 것이다. 정말 내 추측과는 정말 많이 다른 가수들의 생활이었다.

이런 어려운 가수들의 생활을 볼 때마다 난 조금이나마 내게 위안을 해 준다. "그래, 잘 할 수 있어!"

지금은 겨우 '나의 꿈'이라는 새를 쫓으러 출발점에서 서성일 뿐이지만 나중엔 꼭 달리고 또 달려서 '나의 꿈'을 잡고 웃을 날들이 올 것이다.

난 누가 뭐래도 내꿈을 위해 공부하고 노래하고 울고 웃는 것이니 그만큼 난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이를 것이다.

지금 내게는 노래연습도 연습이지만 지금보다 공부를 더잘해서 나중에 커서도 가수가 안되더라도 좋은 직업을 얻도록 노력 할 것이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직업이 가장 보람있고 뿌듯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서 정말 실력 있는 가수가 될 것이다.

내가 6학년이 되고 선생님께서 언젠가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보여 주셨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노래는 잘 부르지만 뚱뚱하고 못생긴 여주인 공이 노래 못 부르고 예쁜 가수의 뒤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이 영화를 보며 난 가수가 되서 남 무대 뒤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무대 앞에서 당당히 노래부르는 실력 있는 가수가 정말 되고 싶다.

비록 지금의 내 꿈이 바뀔지라도 어떠한 꿈이라도 난 내 꿈을 위해 땀 흘리고 울고 웃을 것이다.





목천초등학교 5학년
김 세 정

소중한 우리 글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한글, 지금까지 이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의 말 말고, 다른 나라의 말들을 썼을지도 모른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시대의 우리 국민들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 하셨다. 우리나라의 글도 없고 겨우 직위가 높은 양반들이나 글을 사용하고, 그냥 보통 서민들은 자기가 말한 말을 글로 표현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없었다면 한글을 만들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그 애국심을 정말 본 받고 싶다.

난 유관순 열사 추모제 기념 백일장 대회에 참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말은 다른나라의 말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과 다른나라의 말을 한번 비교 해 보았더니 영어로 '검정색' 하면 '블랙'이 라고 한가지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선 '검정색', '검은색', '까무잡잡다', '까만색' 등등의 많은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어른들에게도 그냥 반말로 쓰지만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등 '요' 자를 붙여 말하거나, '어르신',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어른들을 호칭을 붙여 말한다. 또 '밥 먹어'라는 말을 '진지드세요', '진지 잡수세요'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말에 가득 담겨있다.

한가지 더 알아낸 것은 우리나라의 말은 무척 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 입모양과 성대의 모양을 보고 만드셨다고 한다. '미음'이라고 발음 할 때는 성대의 모양이 된다. 이처럼 많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우리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소중한 우리말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녕'을 'ㅎㅇ'라고 하던다,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세종대왕의 뜨거운 애국심과 밤을 세워가며 만든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이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니...

나는 한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을 봐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우리말
예절을 잘 지키고 다녀야겠고, 한사
람, 한사람씩이라도 우리말을
사랑하고, 세종대왕의 애국심
만큼은 못 미치겠지만 조금
이라도 본 받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말을 소중하게 다루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구성초등학교 6학년
박영진

난 뛰고 있다!

나는 지난 2월쯤 작은고모 결혼식으로 서울에 갔다. 역시 서울은 대도시인 만큼 뷔페도 천안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고 있었다. 그 많은 음식 중에서 내 눈에 가장 끌렸던 음식이 있었다.

그 음식이 연어였는데, 음식보다는 주변에 꾸며져 있던 것이 더 멋있고 예뻤다. 그 옆에 종업원이 있길래 나는 그 종업원에게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푸드스타일리스트'라고 했다. 이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뷔페를 멋지게 배치하고 꾸민 것이다. 그 때부터 내 꿈이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되었다.

나는 내 꿈이 정해진 다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멋진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을거야."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생긴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 직업은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진 직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이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다. 이렇게 부모님과 다툼을 하게 되면 나는 "푸드스타일리스

트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직업이 아니니까 나로 인해서 이 직업을 알려주고 싶어.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 TV에서 문득 보면 '푸드스타일리스트' 직업이 나온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멋지게 보였다.

'푸드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지금 나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지만 서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정말 이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 직업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길을 걷다가 하늘을 보면 항상 내 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꼭 이 직업을 가져서 제일 유명한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될 거라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어제도, 내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내꿈을 향해 오늘도 변함없이 나는 지금도 달리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두고 보라고, 꼭 유명한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되고 말거야."

이렇게 나는 또 한번 외치고 있다.



봉서초등학교 6학년
한 수빈

아이 러브 유 심장

'아이 러브 유 심장'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 꿈을 아시겠어요? 제 꿈은 바로 흉부외과의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빠랑 마트에 갈때마다 서적코너에서 인체에 대해 나온 책을 둘러보기도 하고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 산 책을 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순환계'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환계란 심장과 혈관 같은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 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심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를 보면서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굳힐 수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는 돈도 많이 벌고(?) 여러가지 수술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위도 강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이 병들면 고쳐주는 일을 하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느 이유도 없이 흉부외과의사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릴이 넘치고 웬지 모르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세상 사람이 적어도 50~60%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흉부외과의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 난 소중한 존재니까 생명을 꼭 다뤄야 되는 의사가 되야겠습니다.

내가 커서 만약 유명한 병원에 들어가서 이름을 떨치는 흉부외과의사 한수빈이 된다면 너그러운 슈바이처의사분처럼 외국 어려운 곳에 나가서 의료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첨첨산중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찾아가서 진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가는 착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꿈 흉부외과의사가 되기 위해 내 적성과 흥미를 키우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난 꼭 흉부외과 의사가 될 것 입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아이 러브 유 심장~!!!





봉서초등학교 6학년
이정현

내 꿈은 작가

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의 밧줄을 붙잡고 절대 놓아 버리지 않는다. 밧줄이 끊기려하면 끈을 가져와 칭칭 동여매기도 하며, 밧줄이 끊긴다 해도 새 밧줄로 교체한다.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내가 잡고 있는 밧줄이 이름은 '포기하지 않아.' 밧줄이다. 그 밧줄의 작은 이름은 작가이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이 꿈을 다시 한 번 결심한다. '난 꼭 작가가 될거야. 꼭 될거야' 라고.....

학원공부로 놀 시간조차 없다. 아빠의 잔소리에 눈 뜰새 없다. 가끔 짜증나고 힘들었다. 그 때 도움이 된 것은 책이었다. 책에서는 돈 걱정없는 백만장자로 변신! 잔소리 걱정 없는 맞벌이 부부 딸 아이로도 변신 할 수 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내가 슬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도움을 얻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이 하고 싶어졌다.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나도 기쁨을 느끼는 직업, 그게 정말 좋은 행복한 꿈이 아닐까? 작가는 그렇게 희망과 꿈을 심어다 준다.

평범했던 삶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 끙끙 앓고 슬픔을 그냥 다 받아 먹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듯이 밧줄도 태풍이, 거센 바람이 와서 끊어 버린다고 밧줄을 새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밧줄은 점점 자라고 있다. 나중에 내 밧줄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때 나는 내 '포기하지 않아' 밧줄을 이용해 내 멋진 꿈 작가를 이루고 말 것이다. 내 밧줄은 '포기하지 않아' 밧줄이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어쩌면 그

때 밧줄은 두개가 생길

지도 모른다. 크기가

똑같은 '포기하지

않아' 밧줄과 '작가'

라는 밧줄이.....





월봉초등학교 4학년
홍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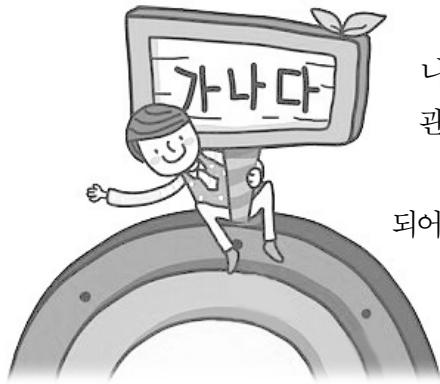
한글을 세계의 언어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등의 많은 외래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많은 외래어들은 여러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도 나도 모르게 나온다.

외래어가 우리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글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부터 전해 받은 텔레비전 등도 모두 우리나라의 언어인 국어, 바로 한글로.....

나의 생각은 예를 들어 컴퓨터는 정보상자, 라디오는 소리상자, 텔레비전은 그림상자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요즈음 그림상자(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상대방을 웃길 때에도 외래어를 이용하여 웃긴다. 나도 그런 개그에 웃긴 하지만 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프로가 유명해 질수록 그 개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그를 따라해서 외래어가 더욱 더 퍼지기 때문이다.

여기 '유관순열사 기념관'이 있는 이곳에는 병천의 순대가, 프랑스는 푸아그라가, 이와 같이 각국의 한 걸음씩 다가서는 음식과 문화로 인해서도 각 나라의 언어를 점차 한글자, 한글자씩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예전에는 영어가 중심의 언어로 되어서 세계의 여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경제발달이 잘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나라에 중국어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발달이 잘 되어서 다른나라와도 교류를 해가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언어인 한글을 알릴 수 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도 중국과 미국처럼 세계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려서 세계의 시장에 당당히 서서 우리한글을 알려야 한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서로 다르게 말을 한다. 남한은 노크라고 하고 북한은 손기척이라고 한다.

나는 내가 남한사람이지만 북한의 손기척이라는 말이 더욱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노크라는 말은 웬지 느낌조차도 외래어 같은 느낌이 듈다.

나는 이 산문으로 인해서 한글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을 다시 알게 되었다. 이 한글이 세계에 퍼져서 세계의 언어가 되어가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이!!!



병천초등학교 6학년
이연주

나의 꿈

나의 꿈은 소설가이다. 나는 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니 정식은 아니지만 조그만한 꿈을 가진 멋진 꼬마 소설가이다.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한 이유는 나의 마음이 담긴 내 마음 속의 글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다. 난 글을 쓰면 내 마음 속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비록 글씨가 못생기고 꿈이 아직 안 이루어져도 난 그 꿈을 꼭 이룰거다. 내가 글을 못 쓴다고, 내가 쓴 글이 마음에 안 든다하면 난 이렇게 말할거다. "난 나 마음에 들때까지 글을 쓸 순 없어 난 내 꿈을 향해 쓰는 것 뿐이야"라고, 난 항상 내 꿈만을 향해 쓸거다. 난 예전에 한번 소설가의 꿈을 그만두려고 했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쓴 소설을 태웠다. 왜 태웠느냐면 난 이젠 꿈이 이랬다 저랬다하면 안돼고 한가지의 꿈만 쫓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소설을 다시 택했다. 이유는 내가 원하는 꿈이 과연 이건가라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난 언제나 소설가의 꿈을 쫓아야하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다짐한다. "소설가의 꿈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 지는데 나는 아직 10%의 노력밖에 안해서 99%의 노력에 달으려면 아직 멀었으니 난 더욱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을 한다. 난 과연 소설가가 될 수 있을까? 내 뒤에서 소설가가 될 수 있게 누군가가 밀어주었으면 좋겠다...



병천초등학교 4학년
김 다슬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유관순언니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유관순언니는 자신이 노력하던 꿈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도 유관순언니는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꿈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 꿈을 위해 노력 했으니깐, 유관순언니는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나라를 구했으면서도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글을 통해 말해주고 싶다. 또 있다. 저희 엄마께선 나를 낳기 전 소원이 얘기를 낳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희 엄마는 밤낮으로 컴퓨터로 얘기낳는 방법을 찾으셨다고 한다. 그 노력이 나에게 알린것 일까? 나는 1년뒤에 아주 이쁘고 건강한 딸로 태어났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난 태어나자마자 2년뒤에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다. 그네에 손이 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때문에 손이 휘어지고, 병원에 입원도 했다. 엄마는 매일 매일 밤낮가리지 않고 병원에 오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그 덕에 난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됐다.

난 또 꿈을 위해 노력한 연예인도 안다. 박지성이다. 박지성선수는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선수다. 이 선수도 1년동안 키가 작아 축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박지성선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키가 크는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4년 뒤 15cm나 커서 축구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귀염등이라고 소문난 보아도 연예인 시험에서 21번 떨어졌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여 22번째에 연예인 시험에 합격됐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

었다고 한다. 나의 꿈은 2가지다. 하나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다. 지금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져 지금까지 옷을 뜯고, 만들고, 반복하며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한가지 꿈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거다. 내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친구들은 내 소원을 무시한다. 친구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거라 생각해?하하하. 너의 소원은 이룰 수 없어. 불쌍하다."라고 말한다. 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남한어른들이 통일이 될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난 이시간을 통해 친구들에게 꿈은 노력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꿈은 쉬운게 아니예요.

노력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예요.

노력을 합시다.



병천초등학교 4학년
이서희

나의 꿈... 아나운서

나의 꿈은 훌륭한 아나운서입니다.

꿈은 변덕쟁이인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유명한 선생님이 되고 싶을 때도 있고, 가수, 의사, 연기자 등 하고 싶었지만 아나운서들을 보면 인기도 많고, 많은 뉴스나 방송으로 새롭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어 시청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보를 잘 들어 주어 다른 사람한테도 남녀노소 누구도 하나 무시하지 않는 아나운서들을 본 받고 싶습니다.

아나운서는 말 실수를 잘하지 않아서 연습도 많이 해야하고 하지만 노력은 하면 누구든지 공부, 능력, 말실수를 안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면 아무리 싫다하여도 공부, 운동, 축구, 스포츠 또한 아나운서들이 하는 프로뉴스를 꾸준히 보고 재밌고 재치있는 말솜씨로 말하는 아나운서들도 있는데 하지만 연속으로 틀리는 아나운서 때문에 또는 날씨가 안맞는 기상캐스터들을 욕하거나 그려는 행위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쌓아올려 짐작해 내용을 간추려 이야기 하는 것이 날씨인데 기상캐스터들이 억울하고 죄송해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악플까지 하는 행동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날씨를 잘못 알려주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날씨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악플... 시청자분들은 악플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아나운서, 기상캐스터는 그 말이 죽을 때까지 가슴, 마음의 상처로 아주 깊게 남습니다. 입장은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나운서, 기상캐스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서희의 아나운서들이 마음, 가슴아픔 상처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다음 시대에 제가 어른이 된 뒤에는 이런 악플 욕등을 하지 않고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를 틀려도 잘 이해해 주면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가수, 연예인들이 아주 많이 도움뿐만 아닌 사랑하는 마음이 남고 이렇게 이해해주면 더욱 자신감이 생겨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발전 하는 사람이 많이 많이 생겨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3년전만 해도 꿈이란 존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첼로리스트라는 당당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선생님께서 첼로 전공을 하셨는데 나를 무료강습을 해주실 때부터 이 꿈을 가지게 되었다.

첫번째 계기는 선생님의 음악회를 가고 나서이다. 음악회를 시작하는데 첼로의 우아함과 웅장함이 들리는데 마음속 어딘가에 콕 박히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계기는 선생님이 예전에 겪은 일을 얘기해 주셨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첼로 강의료를 내지 못 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강의 하시던 선생님이 무료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밥까지 챙겨 주셨단다. 그 선생님은 돈을 위해서 첼로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돈 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넓은 인심을 쓰셨다는 자체가 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집도 그리 풍요하지 않았을 때에 나는 생각했다. '가난하다고 꿈 조차 가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첼로를 열심히 배우게 되었다.

나는 첼로가 좋은 이유를 말하고 하면 가슴에 천천히 느껴지는 운율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악기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첼로는 그냥 악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즐겁게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부터 삶이라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나보다. 나는 지금 보다 더욱 열심히 해서 돋보다는 열정이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주는 그러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





천남중학교 1학년
박지연

외교관되기, 프로젝트!

나는 외교관이라는 멋지고 높은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중1학생이다. 가끔씩 뉴스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연설을 하시는 유엔 사무총장이신 반기문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나의 외교관이라는 꿈은 시작 되었다.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첫째날, 나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내 성적문제이다. 우리학교 1학년 전체 51명 중에서 겨우 14등정도 밖에 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나의 목표인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은 너무나도 높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한심하다. 나라는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난 후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부모님께 나의 꿈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바로 편장을 주셨다. 지금 성적도 않좋은데 무슨 놈의 외교관이 되냐고 하시면서... 솔직히 울고 싶었다.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있는 한줄기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시다니...

이 꿈을 가지게 된 후 3주째 되는 날,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내신이 높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통 때는 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과목
을 열심히 공부하고, 휴일에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특별조치를 취한 것이
다. 솔직히 말해서 난 이 꿈을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
하고, 너무나도 생각을 짧게 하고 결정한 것 같았다.

내가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후 한달이 지난 지금, 나의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외국어공부와 보통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서,
내신점수를 높게 받은 다음, 지망하는 학교를 대전외고로 해서 입학하는
수밖에 없다. 하하하하! 나는 참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비해 참 늦게 깨닫은
방법같다.

드디어! 나의 마지막 프로젝트날이다. 어떤 일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내꿈을
향해 갈 것이다! 영원토록…… 나를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병천중학교 1학년
고 하 늘

평범한 꿈들이 모여서

그다지 특별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나의 꿈들. 이렇게 나의 꿈들을 말하면 단지 평범 그 자체일 뿐이다. 하지만 그 꿈 하나하나에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숨쉬고 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고 그러다가 힘들면 포기도 결심해 본다. 지금 나에게는 포기했던 꿈들이 또 다른 꿈이 되어 내 마음을 흔들고는 한다.

초등학교때 나는 그림을 평범한 취미로만 여기던 아이였다. 그리고 곧 그 그림이란 취미는 화가라는 꿈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화가라는 꿈은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 얼마되지 않아 포기 했다.

5학년 때인가 유관순이 일본순사와 맞서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입상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나에게는 정말 최악이라고 느껴졌고 상을 탈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상을 탔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고 화가라는 꿈은 사라지고 말았다.

지금도 나는 그 그림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하지만 그 추억이 원동력이 되였는지 곧 작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화가라는 꿈을 가졌을 때도 그림을 취미로만 여겼기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작가라는 꿈을 가졌을 때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작가

라는 꿈도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지금 다시 사라진 꿈들의 추억을 돌이켜 볼 때면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포기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른 것을 할 때에도 고생 없이 성공하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 그러다 실패하면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평계를 댄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로해 줄지도 모르지만 안 좋은 습관인 것은 뻔하다.

지금의 나는 초등학교 때처럼 편하게 지내려는 생각은 안한다. 그 만큼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내 꿈을 찾지 못했다. 이미 사라진 꿈을 다시 키워보고자 하면 공부에 시달리는 이 생활속에서 그것을 할 만한 여유가 없다. 또 용기도 없다.

한 때 어떤 선생님을 본받고 싶어서 결심했었던 짧은 시간의 꿈, 화가나 작가라는 꿈보다 더 많은 생각을 했던 선생님이란 꿈, 나에게 격려를 주시고 정을 주시는 따뜻했던 선생님, 그 작은 꿈 하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다.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포기. 나는 평범한 작은 꿈들이 모여 언젠간 큰 꿈을 이룰 거라고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꿈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내 꿈을 찾고 싶다. 나는 미래의 내 모습을 특별한 삶으로 만들고 싶다. 이것이 내 꿈이 될지도 모르겠다. 미래의 내 모습을 찾는 지금의 나의 모습. 언젠가 내 꿈과 동반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꿈은 생각나름인 것 같다. 어른이 되면 이런 상상의 꿈도 펼칠 수 없겠지.



천남중학교 1학년
이희주

또 다른 제2의 희아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움하하 이럴땐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도 저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하다 텔레비전을 끄고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고, 책을 피고 웃음을 씩 짓고 손을 얹어놓고 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치기 시작한다. 띠디띠디띠디~ 그리고는 또 웃는다. 그리고 희아를 생각한다. 실은 우리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엄마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엔 조금의 고난이 있었다. 엄마가 있다는건 한 가정에 있어서 큰 점이 된다. 휴~ 먼산을 보고는 운다. 이럴수록 또 희아가 생각이 난다. 제 2의 희아 생각하면 할수록 더 존경하게 된다. 몇일 전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에서 앞이 안보이는 3살짜리 아이가 나와 피아노를 치는데 눈이 붉어지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나는 눈물이 고이면서 한쪽 눈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래서, 난 내 꿈에 좀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엄마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되었다.



연습을 하고 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았고 그저 피아노 앞에서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를 할 나는 아니다. 부모님이 나 잘되라고 바라고 있으실 텐데..... 그래서 난 더 힘이 난다. 그래서 더 좋은 딸이 되고 싶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피아노를 배운 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꿈과 갖게 되었다.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큰 꿈을 갖지 내 꿈을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고 노력하며 이희주란 이름을 제2의 이희아로 이름을 날려서 나의 라이벌 송재향을 이겨서 큰 코를 다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이 내 하늘이 있기에 일어난 것이다.

엄마 그리고 아빠가 나의 하늘이기 때문에 더 잘되고 있다.

지금의 난.....





천남중학교 2학년
유지원

칠판 위의 오선지

손에 꼬옥쥔
하아얀 분필로
칠판 위에 오선지를
곧게 한줄씩 그어본다.

꿈이 담긴 오선지
그 위의 음표들에게
꿈을 향한 목표를
가득히 담아본다.

교복차림의 아이들을
교탁 앞에 서서
한 명씩 바라볼 그 날을
나는 간절히 바란다.

오늘도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
된 나를 오늘도
꿈속에서 그려본다.





병천중학교 1학년
김하나

아름다운 나의 꿈을 위하여

나에게는 유치원때부터 키워 온 꿈이 있다. 오래 간직해 온 나의 꿈이기 때문에 난 이 꿈을 더 이루고 싶다.

내가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꿈은 바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란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우선 선생님이란 직업은 종류가 다양하다.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선생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선생님, 중학교 각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중학교선생님, 피아노를 전공하여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피아노선생님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많은 종류 중에서 나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지고 싶다.

나에겐 그 직업을 이루기란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처음 가지게 된 계기는, 내가 유치원때 소풍을 갔었는데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우리와 같은 장소에 놀러 온 것이었다. 우리는 잠시 쉬는 동안 우리옆에 있던 중학생들을 유심히 보니, 선생님들의 지시에 질서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난 생각했다.

'저럴 때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시겠구나'라고 말이다. 그 후로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유치원 때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놀러가봤더니



그 사람은 수업을 듣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시간이 아마 영어시간이었나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영어선생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자리잡았다. 그 후로 나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친구들이 영어에 관한 모르는 문제를 물어 볼 때면 나는 미래에 내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을 하면 난 별 것 아닌 일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낀다.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시간에 열심히 가르치시고, 우리가 시험을 잘보면 얼마나 보람을 느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공부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얼른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생각밖에 않든다. 나는 요즘 점점 내 인생의 목표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설레인다. 아직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되고 난 후에의 내 모습을 보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겠다. 그런데 선생님이란 직업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다.

혼자 마음 고생을 하면서 뒤돌아 서서 울어가며 가르쳐야 한다는게 조금 힘들겠지만, 힘들어도 선생님께 혼났으면서도 뒤돌아 다 잊고 선생님께 안기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 조금 전의 일도 용서가 되며 스승과 제자 사이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처럼 벌써 이 생각만해도 난 너무 설레인다. 앞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꼭 이루어서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될 것이며 훌륭한 영어선생님이 될 것이다.



병천중학교 1학년
김우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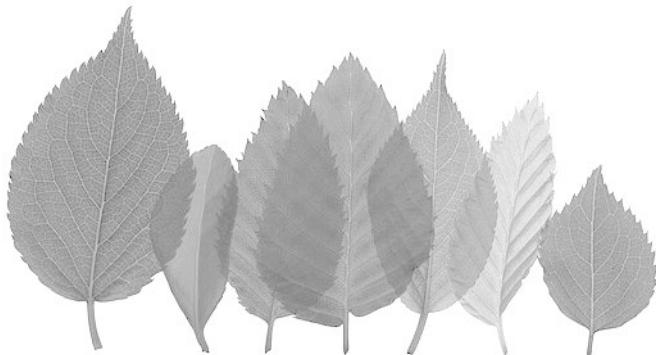
어릴적 나의 가을은

하늘에 노을이 질때
노을이 나뭇잎을 물들여
세상을 노랗게 뒤덮을때
나의 꿈도 잎처럼 물들어 갔습니다.

노을에 물든 잎이 떨어질때
발에 밟혀 부스럭 소리를 낼 때도
철없던 나의 꿈도 부서졌습니다.

소중한 줄 모르고
좋아보이면 꿈이 되었던
어렸을적 나의 가을은

아직까지도 소중한
부스럭 소리를 내며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병천중학교 1학년
임지현

꿈의 씨앗을 품다.

약 4년 전, 내가 3학년이 될 즈음에 한 분의 미술선생님이 병천초등학교에 오셨다. 그 때부터 나의 마음 속에는 '미술선생님'이라는 작은 씨앗을 품게 되었다.

될 것이라는 단순한 꿈만 꾸었던 그 때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우람한 꿈의 나무를 키워가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 단지 꿈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계속 그리며 아무 생각없이 그려왔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식으로 내 꿈의 씨앗을 키운다면 외소한 나무가 되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멈칫하였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림만 그리며 씨앗을 가꾸면 진정 우람한 나무가 될 수 없을 것을 안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우람하고 멋진 꿈의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향기롭고 아름다운 꿈의 꽃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엉켜진 실처럼 복잡한 머릿 속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씨앗에게 무작정 가꾼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로 다짐하였다.



그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미술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릴 당시의 사람의 마음과 상황, 그리고 정성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한치의 거짓도 담지않은 순수한 그림을 그리며 나의 꿈의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이다.

이 다짐은 미술 전문가의 다짐도, 미술선생님의 다짐도 아닌, 미술선생님을 꿈꾸는 한 청소년의 다짐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 다짐은 꼭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설까 옳지 않다고는 장담 못한다. 만약 옳지 못하여도 반성하고, 다짐하고 또 다시 반성하며 가꾸는 우람한 꿈의 나무를 키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성공하지 못하여 실패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비록 실패했기에 우람하지 못 할 수도 있어 외소할 수 있다. 그러

해도 나의 꿈의 씨앗은 마치 장미처럼 진한 향기와 강렬한 열정을 뿜낼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나와 나의 꿈의 씨앗은 미래의 우람한 나무, 또한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이 되기 위해 미래를 향해 다가서며 언젠가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도 혹시 모르는 것이다. 한 발 한 발 다가섰을지, 뒤로 몇 걸음 물러났을지…….





병천중학교 2학년
유정민

나의 꿈

저의 꿈은 자원봉사자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나의 꿈이 된 계기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독고노인과 같은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어 꿈이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리겠다고 웃음을 짓습니다. 몇 일 전, 추석에 할머니댁에 갔었습니다. 할머니댁이 있는 마을에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한분이 계십니다. 자식도 손자도 없으신 분이라 다들 분주한 명절에도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나는 동생과 서툰 솜씨로 만든 송편을 가지고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댁에 갔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할머니께 송편도 드리고 집청소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했을뿐인데도 즐거워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나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친할머니댁으로 돌아오려는데, 그 할머니께서 서운해 하시는 것 같으시길래,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안 보일때까지 대문앞에 나와 계속 서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댁에 도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



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긴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고 뿌듯해져 보람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이 왜 그런건지 잘 몰랐는데, 비로소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들은 베풀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원봉사자가 되겠다고 하면 나도 잘못하면서 무슨 남을 돋냐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이 꿈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을 성의껏 봉사할 것입니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날 단 한사람이라도 필요해 한다면 난 그 한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나의 꿈이 비록 하찮고 작아보일지라도 나는 열심히 그 꿈을 향해 쫓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어제의 반성과 오늘의 희망, 그리고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 제각기의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자, 그 노력으로 자신을 개척하는 자, 결국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 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꿈에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면, 지구 어디든지 가서 도와줄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라는 커다란 꿈을 향해 전 오늘도 한걸음...한걸음...나아갑니다. 한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저는 그 꿈을 실현시켰겠지요.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꿈꾸는 자들이여!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꼭 실현시킵시다!





꿈꾸지 않는 이들이 게

지구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 중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은 작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매순간 그 어느때가 됐든 간에 갈등을 하거나 혹은 의문점이 생기는 그순간에 고민을 하곤 한다. 그 고민 속에는 가치없는 것도 없으며 모든게 소중하고 헛된 고민은 없다. 내가 인생에서 뜻 있고 소중한 고민이 시작되었을 때인 2년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17년을 아무 갈등없이 편하게 살아온 고1시절 나에게는 처음으로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멋진 글과 감동적인 글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웠으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과 함께 주춤하고 고민했었지만 나에겐 그 고민이 보석보다 빛나고 시간 보다 값지고 소중했다. 2년뒤 그날이 오기전까지는...

1학년 생활은 그냥 즐거웠고 행복했다. 나에겐 항상 이런일만 반복되길 바랬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럴 줄 알았다. 그저 나에게 만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성숙해진 고3이 되어 입시준비로 바빠질 무렵,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비웃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다른 이유없이 그저 작가를 한다는 이유로 나를 욕하였다. '작가' 사람들에겐 막노동하고 돈도 못 버는



상류직업에 못미치지만 나에게 '작가'는 글을 쓰며 인생을 사는 소중하고 이루고 싶은 직업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서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로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정말 나의 허황된 꿈일까? 아직 세상을 모르는 나의 헛된 생각일까?라는 수많은 생각들의 괴롭힘 끝에 결국 울음과 함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나의 입은 닫혀졌고 생각은 온통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까마득한 먹구름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학교에 있어도 수업을 듣지 않고 재밌는 것을 보아도 웃지도 않는 것이 한때 짧지만 짙은 나의 인생이었다. 그 후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나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생겨진 취미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다. 아직 학생이라 멀리가는 여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한 곳은 우리집 앞에 있는 유관순사당이었다. 여름방학 때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다. 매봉산 정상을 올라갔다와 나무 아래 그늘에서 스치는 바람으로 땀을 닦고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의자에 앉아 눈도 부치고 생각에 잠겨 있곤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당시 기억이 사라졌다. 근데 한가지만은 기억이 난다. 8월 초쯤에 어김없이 찬물로 발을 적시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작은 내눈에 청개구리 한마리가 보였다. 다른 날 같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그 날은 개구리를 보며 앉아 있었다. 왜인지 닦은 나오지 않지만 개구리가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며 하찮다고 생각했던 개구리도 작은 꿈이 있다고 보여서 그런 것 같다. 이 닦을 넘는 것이 개구리의 꿈이라면 끝내 닦을 넘은 것

을 보며 부럽고 멋있게 느껴졌다. 그래서 일까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고 웬지모를 힘이 생겨 다시 걸었다. 걷다보니 내가 도착한 곳은 유관순동상이었다. 동상으로 자신있게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자신있고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었다. 그 웃음은 꿈을 이룬 그녀의 자신있는 웃음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유관순열사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독립운동가였고 많은 이들의 존경도 받으며 나라 광복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것이 그녀의 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린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관순열사는 우리에게 산타 클로스의 선물처럼 소중한 선물을 주었고 그로인해 죽어서도 사람들이 평생 그녀를 추모하여 오늘과 같은 행사를 열고 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며 나도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어졌다. 그래서 대학진학에 작가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보니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진 걸 느꼈고 한층 더 밝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넓은 들판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내 앞에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도 대통령을 비롯해 선생님, 변호사, 가수 등 작은 꿈이라도 꾸고 있을거라고 언젠가 저아이들이 나처럼 갈등하는 날이 오게되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하고자.

꿈을 꾸지 않는 자여 눈물을 흘려라
 꿈을 꾸지 않는 자여 화를내라
 꿈을 꾸지 않는 자여 주변을 보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박소라

내 꿈을 빛내는 날을 바라며

나는 오늘 언니들과 함께 유관순 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에 도착하자 마자 처음에 주제를 딱 봤을 때 막막했다. 한번도 내 자신의 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였기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면서도 막상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만큼 꿈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다. 그래서 이번 백일장을 계기로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솔직히 어려울 때 내 꿈은 무용가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우리학교에는 무용 선생님이 따로 계셨는데 어느 날 무용을 한번 배워 보는게 어떠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무용실에 가서 언니들이 하는 무용 연습을 구경했다. 어린 나 이였지만 그야말로 반해 버렸다. 어린데도 무용하는게 얼마나 멋있고 이뻐 보이던지 그 때 나는 무용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무용을 배워 보겠다고 부모님께 떼를 쓰던 기억이 난다. 결국 엄마의 반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렸을 적 언니들이 무용하는 모습에 반해 버렸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다.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내 꿈은 교사가 되는거였다. 공부를 밤낮없이 해도 모자를 판에 나는 작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공부와는 거리를 멀리했다. 그 결과 성적은 뚝뚝 떨어졌고 어느날 엄마는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 하나 때문에 속썩여 괴로워하는 엄마의 모습에 정신을 차려서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된 나는 지금도 내 꿈은 여전히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자 차츰차츰 나아지는 내 모습에 엄마는 뿌듯해 하시면서 "네가 선생님이 된다면 엄마는 소원이 없겠다." 라고 가끔은 잔소리로 들리지만 귀 닳을 정도로 말씀하신다. 요즘 학교 끝나고 학교에 남아 야자하고 학원까지 다니느라 늦게 들어와서 피로에 젖어 있는 딸의 모습에 항상 안타까워 하신다. 나를 위해서... 아니 엄마를 위해서라도 난 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지난번 아빠가 사주셨던 책 중에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밖에 몰랐었던 반기문의 조금은 바보스러운 태도에 놀랐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가?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쯤은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자신의 꿈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실력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이고 넘치는 자신감에 외교부 장관이 되셨던 반기문 UN 총장을 본 받고 싶다. 지금 내 나이는 공부를 뒷바탕으로 한창 꿈과 열정이 많을 나이이다. 유관순이 지금의 내 나이 17실에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그의 애국심과 영혼을 남긴 체 짚은 삶을 마치게 되었다. 유관순은 꿈이 없었겠는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꿈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국 방방곡곡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음악가는 악기를 다루고 있을 것이고 과학자는 연구에 한창 집중하고, 기업가는 자신의 기업 경영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다. 또 우리의 학생들은 학생답게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꿈을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노력하는 발판에 한 걸음 내밀었고, 서투른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꿈을 위해서 지금의 내 자리에 만족하고 공부를 열심히 할것이다. 꼭 노력하는자에겐 반드시 성공이 찾아올 것이다. 미래를 밝게 비춰줄 그 성공을 위해 난 오늘도 노력한다. 내 꿈을 빛내는 날을 바라며...



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안은경

꿈이 실현되기 까지...

1990년 10월 26일, 사랑이 애듯한 부부의 꿈이 그들 눈앞에 실현되었다. 맑고 순수한 아이 하나가 그 부부의 아름다운 꿈이였던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만인의 사랑속에 맑고 예쁘게 자랐다. 시간이 흘러 꿈이 친구를 사귀고, 어떤 무언가를 할 때도, 그 부부는 꿈을 믿어 주었다. 간혹, 학교 성적이 나쁘다던가 말썽을 피울지라도 꿈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다. 그런 꿈 하나가 18년을 사랑과 평화속에서 자랐다. 늘 배운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것만 선사하셨다. 2007년 가을날, 꿈이 자라서 꿈을 꾸려고 한다. 18년전 그 때 보다 더 화려하고 가슴 벅찬 꿈을 지금 꾸려고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에 가까운 꿈이 아닌 확실한 미래에 기대에 찬 포부, 뿌듯함, 설레이는 꿈을 말이다. 애듯한 부부의 아름답고 화려한 꿈인 아직은 소녀인 내가 세상 누구보다 희망찬 꿈을 꾸려고 한다. 꿈이 꿈을 꾸게 된 건 6살 때였다.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할 때 연극을 하면서 간호사의 꿈을 꾸었다. 어렸지만 내겐 나름대로 큰 꿈이었다. 그 시절만 해도 큰 꿈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두번째 꿈을 9살 때, TV에 나오던 가수를 보며 키웠다. 그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닌, 단지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 싶었던 이유가 두번째 꿈을 금방 놓아버릴 수 있던 이유라고 지금도 난 자신있게 말 할수있다. 그렇게 허무하게 6년을 흘려 보내고 15살이 된 때에 나는 내 생에 가장 현

실적인 꿈을 꾼 것 같다. 요식업을 하셨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나는 일찍 요리 관련분야에 눈이 뜨였다.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공부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업에 더 열중한 것 같다. 제과제빵을 공부하면서 김용오 제과기능장을 알게 되었다. 그 분은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는 으뜸이셨다. 그 분이 출판하신 책에서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건 변명일 뿐이다'라는 문구를 읽었다. 훌륭한 분이여서 그런지 훌륭한 어록이었다. 그 분의 명성과 열정이 눈부셨다. 나도 그 분처럼 멋진 제과기능장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졌던 때도 잠시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인해 내가 키워온 것들을 덮어 두어야 했다. 시간이 어는 정도 지난 후 여상에 진학하게 되면서 내 꿈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17살에 새로운 꿈을 꾸어야만 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잠시였다. 난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숨겨진 내 재능을 인정 받았다. 간단한 글짓기를 했었는데 그 글이 마음에 드셨는지 나를 따로 부르셨다. 글짓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다. 처음이라서 나가기 꺼려했었다. 그러나 이내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에 그리겠다고 하였다. 처음 나가서는 입선을 하였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았다.

그 날, 나는 생각했다.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닌 마음으로 글을 써야겠다고 말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환에서 하는 글짓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 때, 그 벽찬 마음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여러번의 글짓기를 하면서 꿈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내 글을 읽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동에 젖어 또 한번 내 글을 찾게 되는 그런 꿈 말이다. 꿈이 꾸는 꿈은 바로 독자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하고 웃음을 가득 머금고 또 가끔은 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드는 작가, 세상에게 마음 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 안은경이 되는 것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펜을 들고 심사숙고하여 한 편의 글을 작문한다.



병천고등학교 2학년
신은혜

꿈의 이상을 위하여

나의 이상을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상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애절하였습니다

나의 열정을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나는
이상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 열정으로
내가 꿈을 배웠습니다

정열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당신께 배운 나의 꿈은
그 기대 이상으로
커져버렸습니다

고난과 펁박속에서도
당신의 이상과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임 은 선

'결실 맺는 모든 것은 하나'

꿈이란
내 안의 반려자
여행으로 적어두는 자서전의 끝
색과 선의 조화로움으로
꿈을 그려가는 갈색모자의 화가

손만 대어도 꿈을 향한
소리를 내는 악기 앞 어린이

줄위에 뿌려진 음표들의
선율로 꿈을 만드는 작곡가

몽땅연필에서 만들어지는
큰 꿈을 창조하는 작가

우리의 꿈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햇살과 수분이 되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감으로 떠올라 주는 것
결실 맺는 모든 건 하나





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오은비

자랑스런 우리의 한글을 지키자

지금 전세계에서 자신의 국가만의 글을 가진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소수에 포함되는 자랑스런 나라이지요. 우리나라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글 그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는 한자를 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배우는 양반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일반 백성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글을 읽고 쓰는것을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글이 생기고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힘들어 하는 걸 보고는 고민하시면서 우리나라만의 글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지요. 그 후로 백성들은 점점 한글을 배우게 되고 글을 보고,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죠? 자 그럼 한글이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자를 배웠다고 앞에 내용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한자는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는 잘못쓰면 뜻이 이

상하게 변해지고 말도 안통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세 종대왕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일을 알려주고 싶어도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니 소용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나라만의 글인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에게 한글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처음에는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두라는 글을 사용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새로 글을 만들으냐고 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이두는 백성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세종대왕님은 학자들을 모아 집현전이란 곳에서 우리나라의 글을 만들도록 하고 학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글 즉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훈민정음이 탄생하고 나서 한 참 동안은 양반들은 한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렵게 배웠는데 이제와서 배우기가 쉽고 간편한 한글이 나왔으니 황당할꺼라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점차 한글을 양반들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우리의 자랑스런 보물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자랑스런 나라에 태어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글인 한글이 있는 것이 나라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한글이 사라질려고 하는 것 입니다. 요즘 전세계가 세계화 되면서 공용어로 영어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영어가



스며들게 되었지요. 문제는 그러한 영어로 인해 우리의 한글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이니까 당연히 한글을 가르쳐야 하는데 한글보다는 영어를 우
선적으로 가르치는 사례가 많아서 어린 아이들이 영어는 잘하나 한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어가 중요해도 모국어인 한글을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모국어를 다 배우고 나서 영어를 해야지 반대
로 하면 그 아이가 혼동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글을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우리의 손으로 지킵시다." 지금
까지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가입안내

아우내문화원은 천안시민의 문화의 산실입니다. 우리고장의 문화발전과 문예진흥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시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에 가입하여 우리고장의 문화발전에 활력 소가 됩시다.

>>> 회원이 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문화원 간행물 우선배부 (무료)
- ◊ 문화원 주최 각종행사 안내 및 참여
- ◊ 각종 문화원 보유 자료 열람 활용

>>> 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 ◊ 가입신청서 (문화원 소정양식)
- ◊ 1년회비 : 30,000원 (아우내문화원 정관 제9조)

>>> 문화원에 문의는 이렇게

- ◊ 주소 :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72번지 (330-861)
- ◊ 전화 : (041) 564-1022
- ◊ 팩스 : (041) 563-1021
- ◊ E-mail : seacomputer@paran.com
- ◊ 홈페이지 : <http://aunae.cult21.or.kr>(아우내문화원)
<http://www.cult21.or.kr>(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 약 도



입상작품집

2007년 11월 20일 인쇄

2007년 11월 22일 발행

- 발행인 : 최 영 환
- 인쇄처 : 대성종합인쇄
-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http://aunae.cult21.or.kr>

본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

